

2007년의 끝자락을 검은 기름의 세레 속에서 허우적거린 서해 태안(泰安)의 불안(不安)은 전형적이다 못해 차마 원형적이다. 이기주의적 합리성과 합리적 허무주의로 무장한 채 체제에 안(安)착한 부르주아들은 각자의 개성 속에서 안(安)심한다. 물론 그 안심은安心的 뿌리를 덮고서야 가능해지는 임시-처소(假設-宇)일 뿐이다. 시대의 증상을 뿜는 인류의 집(宇)은 바야흐로 ‘사람의 집’(安)을 허문다. 이 증상은 등각(等覺)으로도 안-되는 것이니, 오히려 비판의 급진주의 속에서야 정상(禎祥)의 싹을 본다.

올림픽도시/철거도시의 명암(明暗) 속에 혼잡스러운 베이징의 풍경처럼, 불안이 체계적으로 은폐되거나 철거된 그 가설무대의 태-안(泰-安) 속에서는 ‘죽음’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. 그러나, ‘우리들은 모두 어떻게 죽을 것인가?’라는 물음이, 그 물음조차 깨부수고 눈 앞에 다가선 현실이라는 사실이 곧 태안의 실체, 부르주아적 평온의 실체다.

눈 앞에 다가선 현실에 대한 불감증의 알리바이는,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고, 너무 커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. 그러나 증상의 존재론은, 존재가 보이는 순간 그 존재로부터 증상을 추려내기가 이미 불가능하다는 데에 그 요지가 있다. 증상은 오직 일상을 통해서 드러나지만, 일상은 증상을 감추고 평안(安)의 풍경을 재생산한다.

정주하 교수의 사진들은 그 일상을 (조금) 다르게 배치함으로써 그 증상을 얼핏 드러낸다. 그러나 증상은 늘 일상의 안(安)온한 배경으로 무죄한 듯 놓여 있을 뿐이다. 그것들은 비상하지도 그리 이상하지도 않거니와 그렇다고 반드시 일상적인 것만도 아니다. 그러니까, 바로 그 사잇길에 그의 사진들이 놓여 있는데, 그것은 비상한 일상이면서 극히 일상적인 이상인 셈이다. 사진들은 그 증상마저 일상 속에 품은 채로 그 번겁(燔劫)의 증환(症患)을 흐릿하게, 그러나 몹시 예리하게 표시하기 때문이다.

그러므로 이 경우 비평문의 안내가 오히려 사족이다. 왜냐하면, 번겁의 증환을 품은 평온한 일상을 찍은 그의 사진들은 결코 그 위기를 손쉽게 제시하지 않으려는 안타까움 속에서 제 나름의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. 그의 사진을 접하는 수많은 관객들은 ‘이걸 왜 찍었어?’ 라며,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 버려야 하는데, 바로 그같은 반응이야말로 번겁의 증환을 체질화한 일상의 변함없는 풍경이기 때문이다.